31 쪽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아들로 칭했고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41 쪽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내전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다.



51 쪽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하고, 농민들을 만리장성과 병마용갱 등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했다.

46 쪽

석가모니는 오랜 고행 끝에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브라만교의 신분 차별을 부정했다.

I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1. 선사 문화와 문명의 특징
2.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세계의 형성
3. 고대 동아시아·인도 세계의 형성

이번 중단원에서는 선사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해하고, 각 문명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주제 1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핵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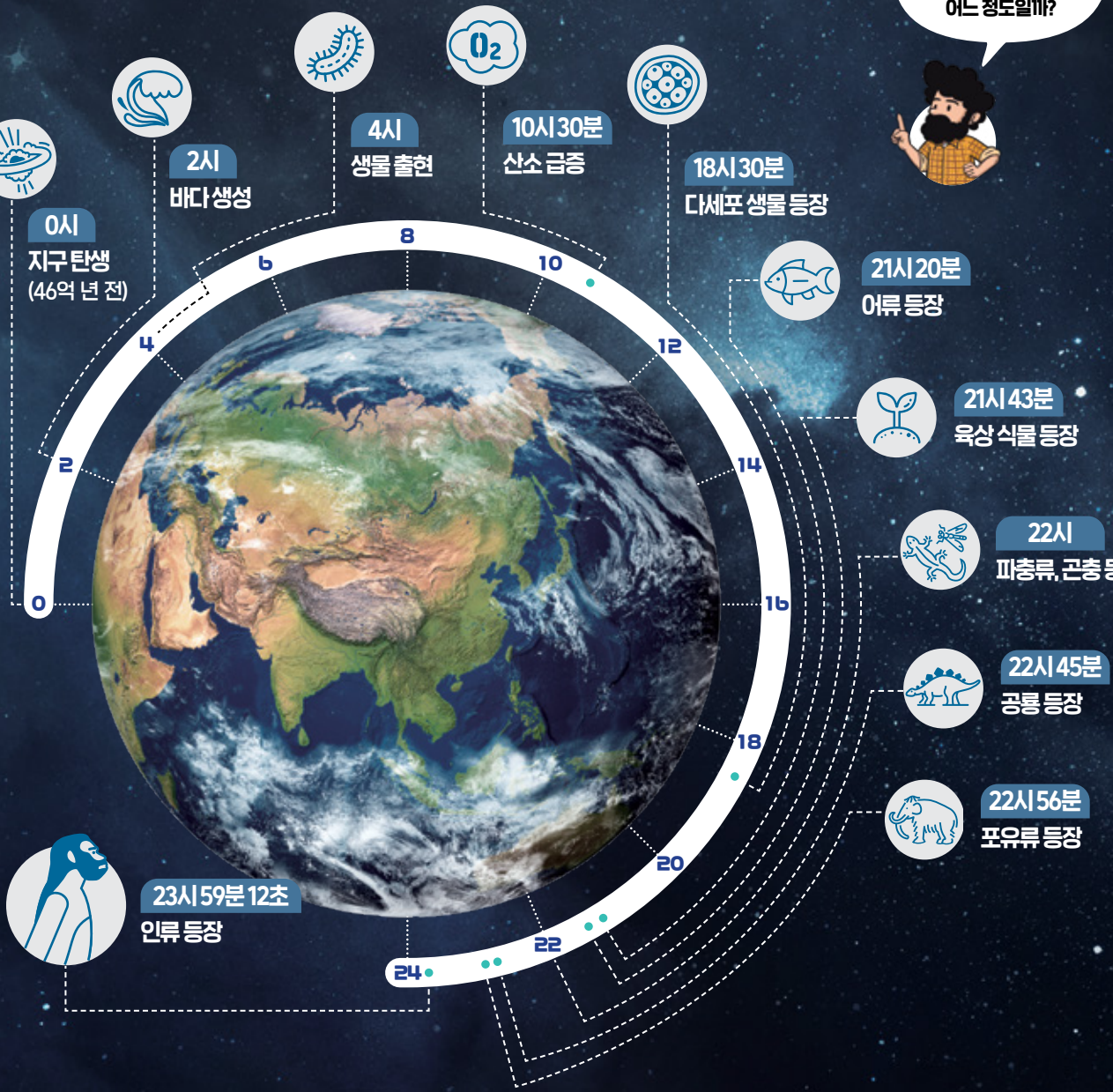
인류는 언제 등장했고, 선사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01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등장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거대한 용암 덩어리였던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며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후 여러 변화가 일어나 생명체가 등장했고, 단세포 생명체는 점점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류(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 이르는 말)가 등장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의 인류는 지구상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존재하며, 바다·공기·토양 등 생태계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

• 24시간으로 표현한 지구의 역사

- 생태 문화 전시관 '더 플래닛'



02 인류의 진화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등장했다.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일부 영장류(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을 포함한 생물종)는 네 발로 걸을 때보다 멀리 보고 적은 힘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했다.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 뼈 화석과 발자국 화석 등으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는 일직선이 아닌 나무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일어났다. 진화 과정에서 많은 종이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동시에 여러 종이 공존하며 경쟁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현재 인류의 직계(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한 종만 남았다.



↑ **뼈 화석**(에티오피아국립박물관)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뼈 화석이다. 이 화석은 '루시'라고 불리며, 연대가 오래된 화석 중에는 드물게 몸 전체 뼈의 40%가 발굴됐다. 루시는 초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한다.

●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1. 두 발로 걷던 원시 인류가 발자국을 진흙에 남겼다.
2. 발자국이 말라 굳고, 그 위에 화산재 등이 쌓여 발자국 모양이 유지됐다.
3. 지층이 쌓이면서 발자국 화석은 더욱 땅속 깊이 파묻혔다.
4. 여러 자연 현상으로 지층이 깎여 나가면서 발자국 화석이 드러난다.



← **라에톨리 발자국 화석**(탄자니아 엔둘레니) 1978년에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이다. 인류가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증거로, 화산재 위에 남은 발자국이 굳어 생겼다.

● 인류의 진화 과정

- 이상희, 『인류의 진화』



03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인류가 처음으로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땅 표면의 많은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던 추운 시기)가 길었고, 기후 변화가 잦았다. 구석기인은 무리 지어 생활하며 언어, 도구, 그리고 불을 사용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약 30만 년 전부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 한반도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연결되어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며 살 수 있었다.

구석기 도구들

도구 구석기인은 자연 상태의 나무와 돌을 사용하다가 점차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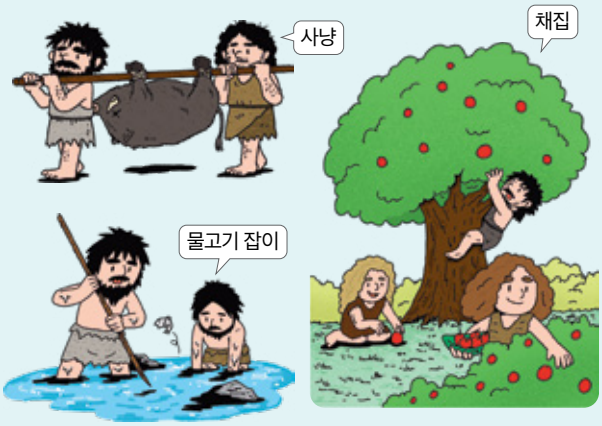
(프랑스 툴루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주먹 도끼**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돌도끼로, 손에 쥐는 쪽은 둥글고 반대쪽은 뾰족하게 날을 세운 형태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이런 형태의 주먹 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됐다.

거주 구석기인은 먹을 것을 찾아 주로 **이동 생활**을 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에서는 동굴과 바위 그늘 등에 한동안 머무르거나 막집을 짓고 살았다.

식량 구석기인은 주로 나무 열매와 식물 뿌리를 채집(필요한 것을 찾아 얻거나 캐면서 모으는 일)하거나 짐승과 물고기를 사냥해 먹을거리를 구했다.





← **불의 사용** 불을 사용해 추운 날씨를 견디고, 짐승의 공격을 막아냈다. 불로 익힌 음식이 소화하기 더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인류의 뇌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신앙 동굴 벽에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흙으로 예술품을 빚었다.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오스트리아 빈자연사박물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라스코 동굴 벽화**(프랑스 몽티냑) 소, 말, 사슴과 같은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약 1만 5천 년 전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04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기에는 따뜻해진 날씨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오늘날과 비슷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졌다. 신석기인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농경**(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과 **목축**(소·말·양·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며 식량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 문화가 나타났다.

신석기 도구들



도구 신석기인은 돌을 갈고 다듬어 뗀석기보다 더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하거나 간단한 조리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라크 아르빌문명박물관)

↑ **빗살무늬 토기와 메소포타미아 토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졌다.

↑ **돌도끼날** (국립중앙박물관)



거주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먹을거리가 더 풍부해지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정착 생활**을 하는 집단이 늘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마을은 점점 커졌다.

식량 신석기인은 곡식을 기르고 야생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키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채집과 사냥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속 농경과 목축**(알제리 일리지) 땅에 있는 이삭을 줍는 모습과 소를 사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신앙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의 사상과 신앙도 함께 발전했다. 주로 농사에 영향을 주는 해, 달, 물 등의 자연물이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탐구 ②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 **암사동 선사 유적지의 움집**(서울 강동)



함께 확인해요

❶ 여러 종의 인류가 공존하고 경쟁하며 진화했고, 오늘날에는 □□ □□ □□ 한 종만이 남았다.

❷ **생각 UP** 생태환경의 변화는 선사 시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농업 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찾아 먹던 인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농경의 규모가 커졌고, 이는 '농업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농경이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왔다고 흔히 말하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두 입장을 읽고 농경의 시작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까요?

주장

01 농업 혁명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왔다

농업 혁명은 인류의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해 곡물 중심의 식생활이 자리 잡았고, 정착 생활이 늘어나면서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던 수렵 시대보다 아이를 낳는 간격이 짧아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류 안에서 수많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인류가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농경에 필요한 물을 다루는 기술이나 농사 시기를 파악하는 전문 지식 등이 발전했습니다. 농경으로 협동 노동을 경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 대규모 집단생활도 가능해졌죠. 그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 농경 없이 가능했을까요?



주장

02 농업 혁명은 인류가 빠진 함정이다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인류는 채집과 수렵하는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을 시작하면서 노동 시간이 늘어났죠. 게다가 한정된 종류의 곡식에 의존하는 식생활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다양하지 않았고, 몸집은 이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수확량도 일정하지 않았죠.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전염병에도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농경지를 늘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곡식 위주로 농사를 지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물의 다양성이 훼손됐어요.

농경으로 이전보다 인류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달라졌고, 식량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지배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먹는 석기 시대의 평등 사회는 이제 없어진 거죠. 권력을 지닌 지배 계급은 왕궁과 무덤을 만들거나 전쟁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 노동시켰습니다. 이렇듯 농경의 시작은 여러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농업 혁명에 대한 두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구분	근거
주장 1	
주장 2	

❷ 논술 UP) 농업 혁명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고, [보기]의 단어들을 참고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보기]
집단생활, 기술, 전문 지식, 영양, 문명, 노동 시간, 식물 다양성, 지배 계급



주제 2

세계 고대 문명의 형성

관련 주제
→ 주제 3(34쪽)
→ 주제 6(46쪽)
→ 주제 7(50쪽)

핵심 질문
세계 곳곳에서 고대 문명이 등장한 배경과 각 문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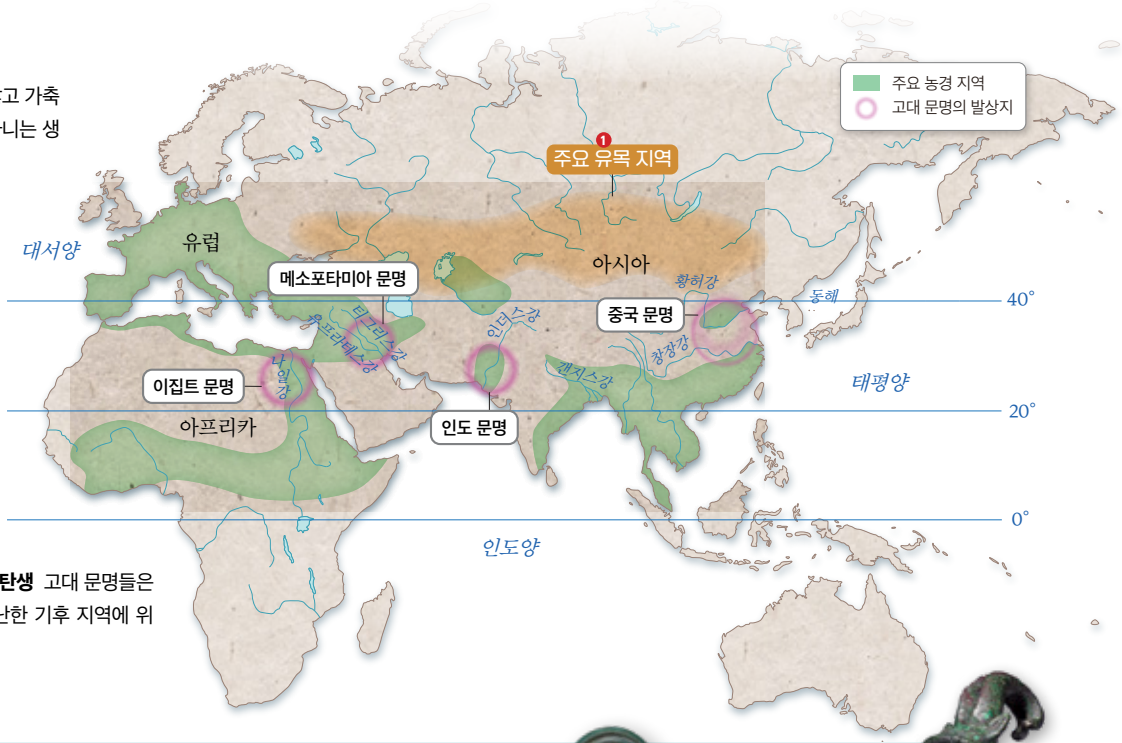
01 고대 문명의 등장

인류가 이룩한 물질·사회적 발전

농경을 시작한 인류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큰 강 유역(강물이 흐르는 언저리)에 모여 살았다. 이들은 홍수를 막고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관개 시설(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공 시설)을 설치하며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 쓰고 남은 생산물을 나눠 가지면서 **사유**(개인이 가지는 것)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재산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는 집단이 나타나 **계급**이 발생했다.

지배 계급은 사람들을 동원해 대규모 관개 시설, 궁전과 신전 등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도시 중 일부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이용해 **정복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넓히고, 주변 지역과 교역(지역 또는 나라 간에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하며 **도시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원활한 통치와 교역을 위해 **문자**가 활용됐다. 이로써 인류는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에서 문자로 기록하는 역사 시대로 들어섰다.

❶ **유목**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가축이 먹을 풀밭과 물을 찾아 옮겨 다니는 생활을 뜻한다.



→ **주요 농경 지역과 고대 문명의 탄생** 고대 문명들은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의 온난한 기후 지역에 위치한 큰 강 유역에 모여 있다.

• 새로운 도구, 청동기의 등장

청동은 구리를 주성분으로 주석과 아연 등을 섞어 만든 합금이다. 청동을 만들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고, 재료인 주석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도구(청동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주로 전쟁에서 활용하기 위해 무기로 만들거나, 장신구와 제사 도구로 만들어 지배층의 권력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 **청동 무기**(영국박물관)



→ **청동 팔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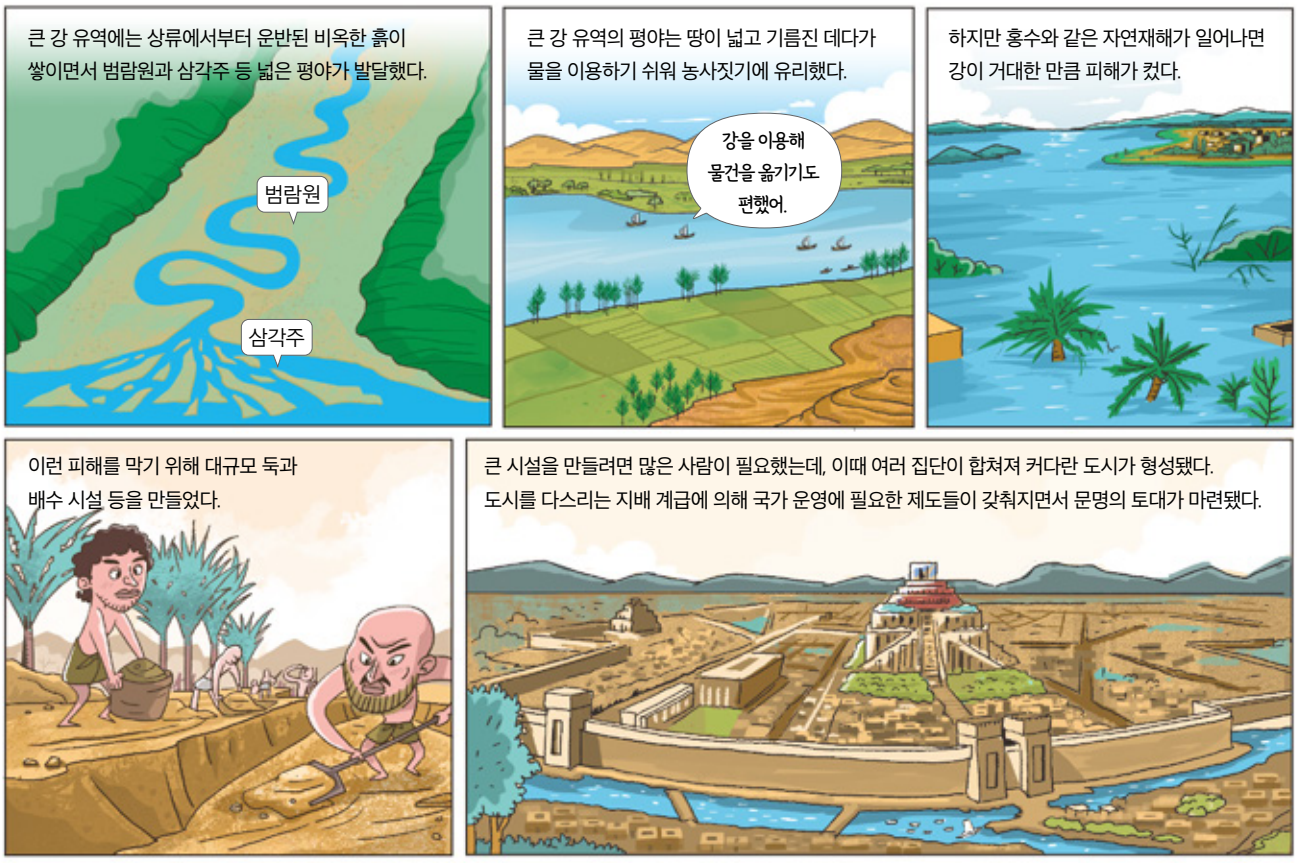


→ **청동 거울**(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 **청동 신상**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을까?



Q.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만 발생할까?

문명이 반드시 큰 강 유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산림이 많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나 토마토 등을 재배하기 위해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고, 숲의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으며 문명을 발전시켰어.

Q. 고대 문명은 4개밖에 없을까?

보통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 지역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특히 페루에서는 기원전 3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대.



올멕 두상 (멕시코 할라파 인류학박물관)



노르테 치코 문명의 피라미드(페루 리마)



↑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역**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 놓인 땅'을 뜻한다.

02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으로, 토지가 비옥해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도시 문명을 이뤘고,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왕은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쐐기 문자**를 점토판에 새겨 왕의 통치와 제사, 교역 내용 등을 기록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왕**이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해 통치 체제를 정비하며 전성기를 이뤘다. 이후 바빌로니아 왕국은 약 200년간 유지됐지만, 기원전 16세기에 철기로 무장한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 쐐기



↑ **쐐기 문자** 점토 위에 뾰족한 갈대로 새겨 쓴 문자이다. 문자의 선이 쐐기 모양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문자이다.

쐐기 문자 기록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는 메소포타미아 사회

-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 196조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 199조 귀족이 다른 사람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



↑ **쐐기 문자로 새긴 법령**

→ **함무라비 법전비**(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상단에는 신에게 지휘봉과 반지를 받으며 왕권을 인정받는 함무라비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하단에는 쐐기 문자로 총 282개 조항이 새겨져 있다.

탐구 1 법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 **지구라트**(이라크 나시리야) 벽돌로 높은 기단을 쌓고 꼭대기에 신전을 지었다.



03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문명

이집트 지역의 나일강은 일정 시기마다 범람(큰물이 흘러넘치는 것)해 강 주변에 비옥한 흙이 많이 쌓였다. 이에 많은 사람이 나일강 유역에 모여 농사를 지었고,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 출현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으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달력(태양력)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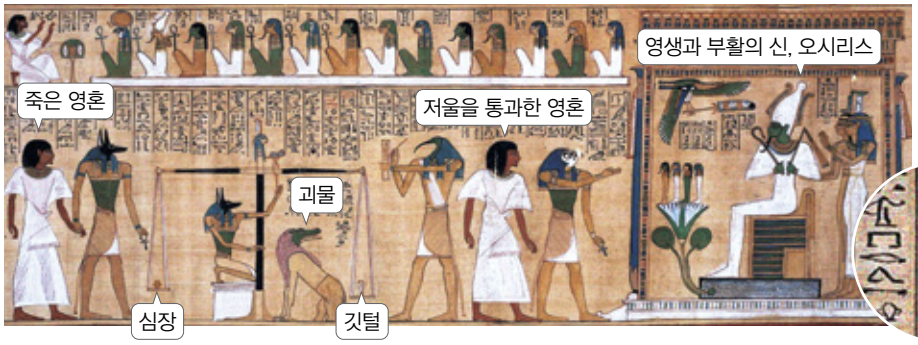
기원전 3000년경에는 여러 도시를 통합한 통일 왕국이 등장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아들로 칭했고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파라오의 업적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을 파피루스 등에 남겼다.



↑ **이집트 문명의 영역** 매년 8, 9월에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흘러넘쳐 주변에 물과 흙을 공급했다.

영혼의 부활을 믿은 고대 이집트인

이집트인은 죽은 뒤에도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다. 저승에서 심판받고 영혼이 부활하려면 육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거대한 피라미드에 모셨고, 사후 세계의 안내서인 『사자의 서』를 함께 묻었다.



↑ **『사자의 서』 중 심장 무게를 재는 장면**(영국박물관) 심장은 살아 있을 때의 양심을 뜻하며, 이 심장을 저울에 올려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과 함께 무게를 잰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이 심장을 먹고, 깃털보다 가벼우면 영생을 얻어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파피루스** 나일강에서 자라는 식물로, 줄기를 가늘게 자르고 말려 종이처럼 사용했다. 'paper(종이)'의 어원이다.



← **『사자의 서』에 있는 상형 문자**

탐구 ② **영혼의 부활에 관한 이집트인의 믿음을 보여 주는 다른 유물과 유적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스핑크스, 미라관

내세관과 관련된 이집트 유물들



→ **피라미드**(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공사는 주로 강물이 범람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진행됐고, 농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제공했다.

→ **미라관**(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



인도 문명의 영역과 아리아인의 진출 인더스강 유역은 평야 지대이자, 서아시아와 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하라파에서 발굴된 인장(영국박물관) 상형 문자가 담긴 인장으로,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다.

❷ **불가촉천민**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란 뜻으로, 인도의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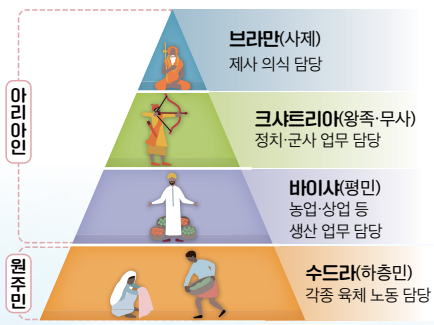
04 인더스강 유역에서 피어난 인도 문명

인도의 북서부에 있는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도시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히 교역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아리아인**이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했다. 이들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아리아인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업을 발전시켰고, 철제 무기로 정복 전쟁을 벌여 도시 국가를 세웠다. 아리아인은 원주민(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베다**』라는 경전을 만들어 농경과 관련 있는 태양, 물,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을 신으로 여기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발전해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탄생했고 브라만 계급의 권위를 높였다.

아리아인이 만든 신분 제도, 카스트

고대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됐다. 카스트는 사람을 4개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시간이 흘러 카스트에 속하지 못하는 ❷**불가촉천민**도 생겼다. 서로 다른 카스트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는 일도 금지됐다. 현재 인도에서는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일상생활에는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탐구 ③ 아리아인이 엄격한 신분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모헨조다로(파키스탄 라르카나) 도로와 하수 시설, 벽돌로 만든 집, 공중목욕장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약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았던 계획도시였다. 건물과 도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계속 벽돌을 구웠는데, 불을 피울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됐다. 이에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져 문명이 쇠퇴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05 황허강 유역에 자리잡은 중국 문명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에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청동기를 사용하고 정치 조직을 갖춘 도시 국가가 출현했다. 기원전 1600년경에 상이 황허강 유역의 여러 국가를 통합했다. 상의 왕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크고 화려한 청동기를 만들었다. 또한 농사나 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거북의 배딱지(갑)나 동물 뼈(골)를 이용해 점을 쳤다. 점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했는데, 이를 **갑골문**이라고 한다.

상의 서쪽에서 성장한 주는 기원전 1100년경에 세력을 넓혀 상을 멸망시켰다. 주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왕이 수도와 주변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지방은 혈연관계인 왕족이나 공신(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을 제후(황제로부터 일정 영토를 받아 그 지역의 백성을 다스린 사람)로 삼아 다스리는 **봉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후의 세력이 커지면서 주 왕실의 통제력이 약해졌고, 이런 가운데 기원전 8세기에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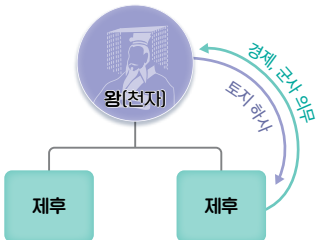
↑ 중국 문명의 영역


← **갑골문**(중국 은허박물관) 동물 뼈에 구멍을 내고 불에 구워 갈라진 모양으로 점을 쳤다.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됐다.

갑골문 기록

제후들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봉건제

봉건은 '토지를 나눠 주어 제후로 삼고(封: 봉할 봉) 제후국을 세운다(建: 세울 건)'라는 뜻이다. 왕은 제후에게 다스릴 토지를 주고, 제후는 왕에게 물자와 군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왕과 제후 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고, 제후에 대한 왕실의 통제력도 약해졌다.



↑ 주의 봉건제

탐구 ④ 주의 봉건제가 지닌 한계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권력의 상징이었던 중국 고대의 청동기

상과 주에서는 청동기를 주로 제사에 사용했고, 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상징했다. 신분에 따라 왕과 제후 등이 가질 수 있는 청동기의 개수도 정해져 있었다.


↑ **청동 솥**(중국 상하이박물관)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때 청동 솥에 그 내용을 적어 전달하기도 했다.


→ **코끼리 모양 청동 그릇**(중국 허난성박물관) 청동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물 모양 청동 그릇도 만들어졌다.

함께 확인해요

[보기]
문자 사용, 파라오, 큰 강 유역, 갑골문, 함무라비 법전, 청동기 사용, 파피루스, 지구라트, 카스트, 계급, 봉건제, 브라만교

❶ [보기]에서 4대 문명의 공통점을 보여 주는 단어를 찾아 써 보자.

❷ [보기]에서 각 문명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시어를 찾아 빈칸에 알맞게 써 보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번 중단원에서는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의 정치 체제들을 비교하고, 종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3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 주제 12(74쪽)

핵심 질문
서아시아를 통일한 페르시아는 제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발전했다. 두 지역은 어떻게 달랐을까?

01 서아시아를 정복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이후(30쪽 참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포함한 서아시아에는 많은 나라가 등장해 세력을 다퉜다.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❶제국이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위협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복지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걷는 강압적 통치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했다. 이후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했다.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제국 지배

> 신은 온 세계를 뒤져 정의로운 왕을 찾았다. …… 신은 나를 전투 없이 평화롭게 입성하게 해 바빌론을 고난에서 구했다. …… 나는 키루스, 온 세상의 왕, 위대한 왕, …… 온 사방의 왕이다. …… 주변의 모든 왕이 …… 바빌론에 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 나는 모든 백성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했다.
>
> - 키루스 2세의 원통 비문



↑ **키루스 2세의 원통**(영국박물관)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을 정복한 후 자신의 업적을 쐐기 문자로 새겼다.

탐구 ① 키루스 2세가 밑줄 친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❶ **제국** '황제 국가'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큰 나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 **날개 달린 사자 장식 뿔잔**(이란 국립박물관)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유물로, 다리우스 궁전에서 출토됐다.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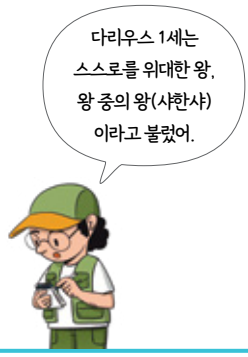


왕의 길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약 2,400km에 이르는 도로망이야. 일정 거리마다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역참이라는 시설을 뒀어.



02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다. 그는 중앙 집권 체제(나라의 권력이 중앙(왕)에 집중된 정치 형태)를 강화하기 위해 넓은 제국을 20여 개 주로 나눠 총독(맡은 구역의 행정 책임자)을 파견하고,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해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관리의 비리 등을 감독하는 사람)도 보냈다. 그리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건설하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도 만들려 했으며, 화폐 및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 등의 단위를 재는 법)을 정비했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로아스터교**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인정해 제국을 안정시키려 했다.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일까?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는 빛과 진리를 상징한다. 세계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대립하며, 선을 택하면 구원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었다.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도 생각했다. '최후의 심판', '부활', '천국과 지옥' 등의 요소는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



➔ **아후라 마즈다 아래에서 포로를 밟고 있는 다리우스 1세 조각**(이란 케르만샤)

탐구 ② 다리우스 1세가 오른쪽 조각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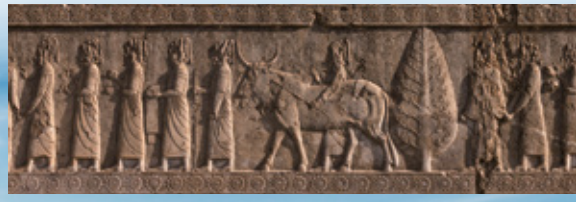
●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이란 시라즈)

다리우스 1세와 그 후계자가 건설한 수도로, 제국 곳곳의 다양한 건축 재료와 건축 기법을 총동원해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만국의 문과 동물 투쟁도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것

아파다나 궁전의 계단 부조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다양한 조공품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다리우스 궁전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건물 중 하나로, 다리우스 1세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03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고대 그리스



↑ **올림피아 제전의 달리기 모습**(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달리기, 멀리 뛰기, 창 던지기, 레슬링 등의 종목이 있었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주로 가리킴.

그리스는 일찍부터 오리엔트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산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 곳곳에 여러 도시 국가가 발전했는데, 이를 **폴리스**라고 한다. 대표적인 폴리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다. 폴리스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대부분 그리스어를 쓰고 같은 신을 믿는 등 동족 의식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화합을 추구하기도 했다.



↑ **도편 추방에 쓴 도기 조각**(그리스 아고라박물관) 아테네에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적게 했고, 그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10년간 추방했다.

아테네

초기에는 귀족이 정치를 이끌었으나,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고 이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면서 **민주정**이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스파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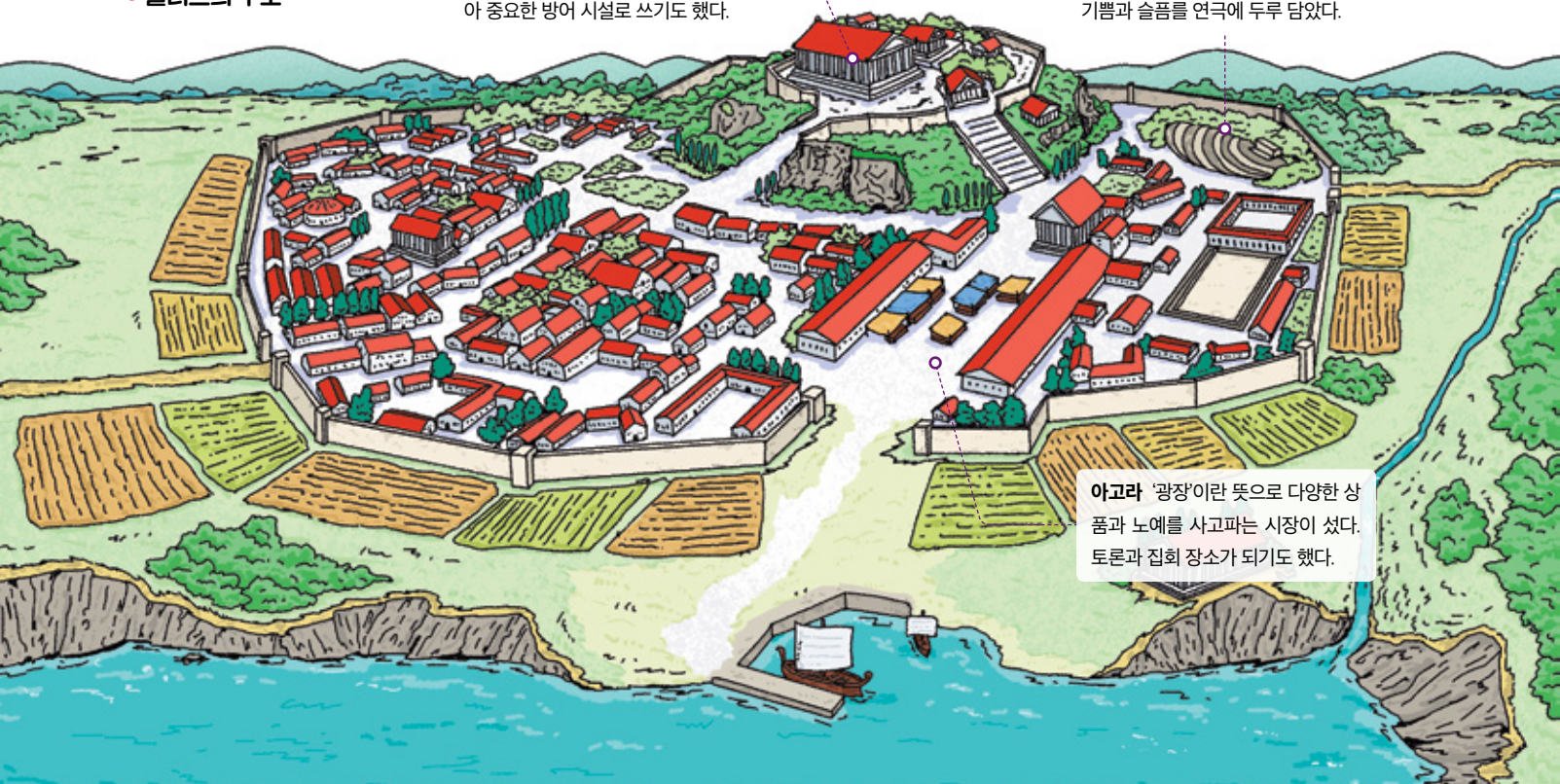
이웃 폴리스를 정복해 노예로 삼으면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발전했다. 모든 남성 시민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켰다.



• 폴리스의 구조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라는 뜻으로 신전과 군사 시설이 있으며, 성벽을 쌓아 중요한 방어 시설로 쓰기도 했다.

원형 극장 그리스인에게 연극은 중요한 오락거리였다. 신에 대한 찬양, 삶의 기쁨과 슬픔을 연극에 두루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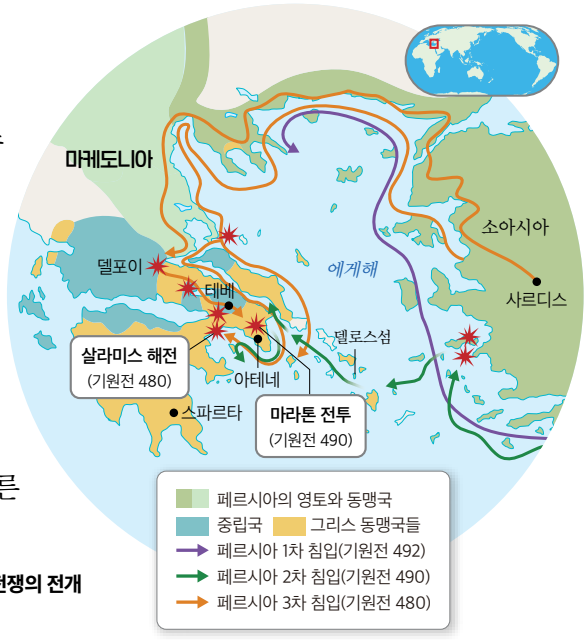
아고라 '광장'이란 뜻으로 다양한 상품과 노예를 사고파는 시장이 섰다. 토론과 집회 장소가 되기도 했다.

04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그 영향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

그리스가 소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워 나가자,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는 대군을 동원해 그리스를 공격했다(**그리스·페르시아 전쟁**).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쳐 이를 막아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정복의 실패로 세력이 약해졌다.

한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테네는 **민회**를 중심으로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페르시아가 다시 침입할 것을 대비해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다른 폴리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전개**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공직자 대부분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장군 등 일부는 선거로 뽑았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 문제 없이 공직과 재판에 참여하도록 **수당**을 줬다.



여성과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페리클레스의 연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므로 우리 정치 체제를 **민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주요 공직 취임에는 …… 능력이 중요합니다. ……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페리클레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탐구 ③ 밑줄 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테네가 시행한 정책은 무엇일까?

탐구 ④ 아테네 민주정이 지닌 한계는 무엇일까?

탐구 ⑤ 공직 추첨제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다리우스 1세는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는 □□□□□□을/를 이용해 왕의 권위를 높였다.

❷ 아테네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❸ **생각 UP**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주제

4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동서 융합

관련 주제
주제 6(46쪽)

핵심 질문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제국 안에서 다양한 이들은 어떻게 섞였을까?

01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장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여러 이익을 독점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폴리스들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에 맞섰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 쪽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양쪽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혼란에 빠진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4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침략해 치열한 전쟁 끝에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인과 현지인의 혼인을 장려했다. 그 결과 그리스 문화와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동서 문화가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났다(47쪽 참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됐으나, 헬레니즘 문화는 계속 이어졌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발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하는 알렉산드로스 (이탈리아 폼페이)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에게도 정복한 지역의 현지인과 결혼하도록 장려했다.



탐구 ① 알렉산드로스의 혼인 정책으로 알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소스 전투 모자이크화(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를 묘사한 그림이다.



02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인은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감정을 가지며 실수도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리스 문화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탐구는 철학과 민주정의 발달로 이어졌고, 논리적인 말솜씨나 웅변술도 강조됐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 제국의 성장으로 폴리스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고, 제국의 시민에게 걸맞은 삶을 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도 나타났다.

종교 그리스인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 운명을 담당하는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고, 폴리스의 중요한 일을 신에게 묻는 의식이 있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의 신이 서로 섞이기도 했다.



↑ **그리스 신상들**(그리스 아테네학술원)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 **페르가몬 신전 제단**(독일 베를린페르가몬박물관)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후 그리스계 왕국이 지배한 튀르키예에 건설된 제우스 신전 제단의 일부이다. 아테나가 거인족을 물리치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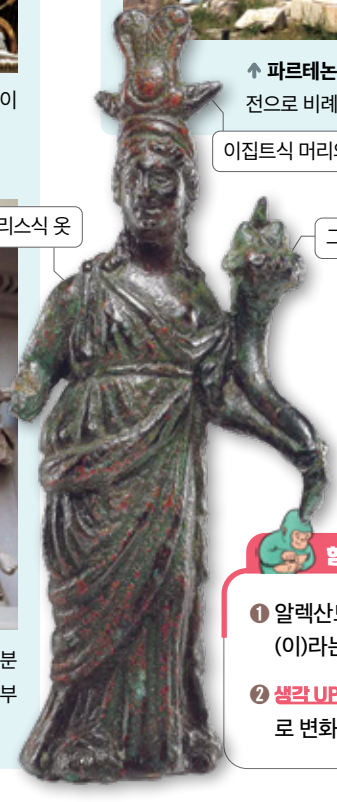
철학 그리스인은 세상의 근원과 인간을 탐구하며 철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에 대한 탐구가 많이 이뤄졌다.

역사 **헤로도토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역사』를,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이 책들은 서양에서 역사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예술 그리스인은 신전과 신상을 건설하며 건축과 조각, 미술을 발전시켰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오리엔트 지역의 영향으로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도 더 생생해졌다.



↑ **파르테논 신전**(그리스 아테네) 아테나 여신을 모신 신전으로 비례와 균형미가 뛰어나다.



← **이시스-티케 여신상**(이란 국립박물관) 이집트의 대지의 여신 이시스와 그리스의 행운의 여신 티케가 결합한 신상으로, 옛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됐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함께 확인해요

❶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마다 □□□□□□(이)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을 이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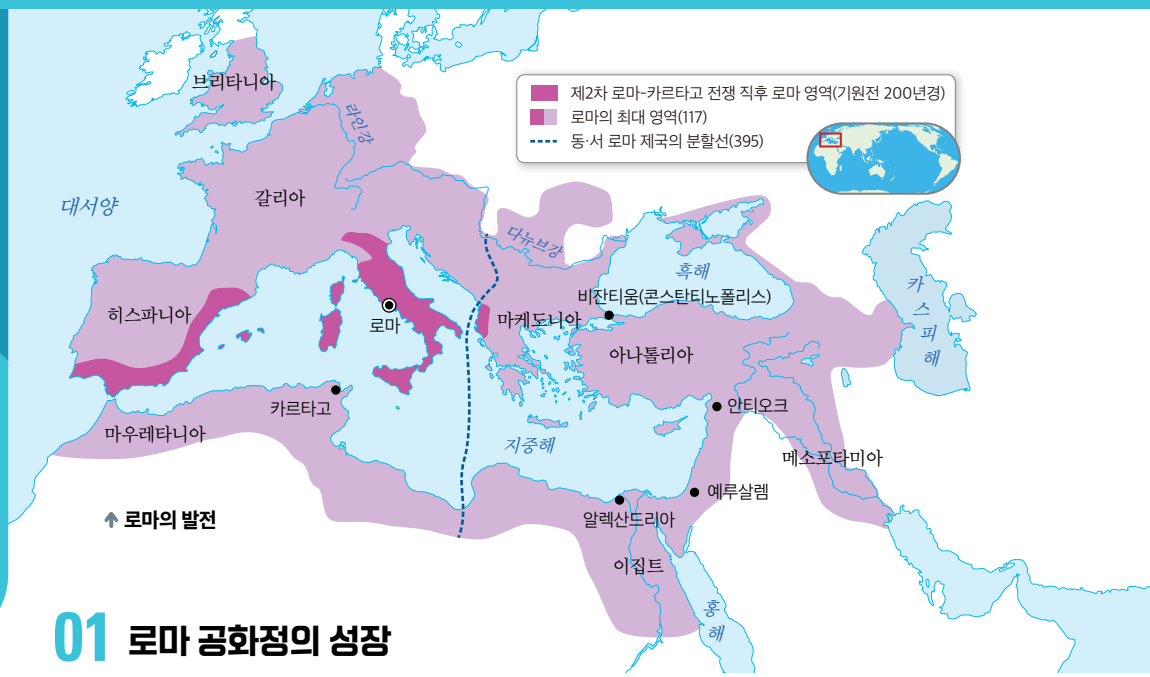
❷ **생각 UP**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헬레니즘 문화로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말해 보자.

주제 5

관련 주제
→ 주제 12(74쪽)
→ 주제 13(78쪽)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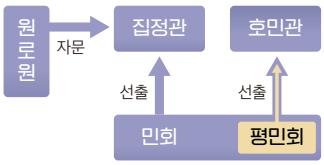
핵심 질문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던 크리스트교는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



로마의 발전

01 로마 공화정의 성장

도시 국가였던 로마는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왕 없이 여러 세력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형태)을 수립했다. 로마 공화정은 행정을 맡은 집정관, 귀족 대표 기구이자 자문(어떤 일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 것) 기관인 원로원, 법률과 정책을 의논해 결정하는 민회로 이뤄진 정치 체제였다. 초기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지만, 이후 전쟁에서 역할이 커진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평민 대표 기구인 평민회가 만들어져 평민을 보호하고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관**을 선출했다.



로마 공화정의 구조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 패권(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 또는 어떤 영역을 주도하는 힘이나 권력)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❶로마-카르타고 전쟁). 그러나 전쟁 이후 정복지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들어와 자영농(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몰락하고, 이들의 토지를 귀족이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원전 2세기에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❶ **로마-카르타고 전쟁**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던 카르타고와 로마가 기원전 264년부터 벌인 전쟁이다. 약 120년간 세 차례를 싸운 끝에 로마가 승리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조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만 향유할 뿐, …… 집도 없이 떠돌고 있다. …… 세계의 지배자가 됐지만 자기 소유의 땅은 한 조각도 없다.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라쿠스 형제(프랑스 오르세미술관)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이 가질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땅은 몰수해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려주려 했다. 또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량을 싸게 공급하는 등 자영농을 기르는 개혁을 추진했다.

탐구 ① 그라쿠스가 연설할 때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탐구 ② 그라쿠스 형제가 추진한 개혁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02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

기원전 1세기에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인기가 높아진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았으나, 공화정을 지지한 귀족들은 그가 황제가 되려 한다며 암살했다. 이후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내전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다(기원전 27).

이후 로마에서는 사실상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시작됐다. 200년 동안 유능한 황제가 여러 명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누렸다. 지중해 동쪽 지역까지 정복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됐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가 지속됐다.

그러나 2세기 말부터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3세기에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황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로 옮기고(330) 부흥을 꾀했지만, 그가 죽은 후 다시 내란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결국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됐다(395).



• 제국을 다스리며 발달한 실용적인 로마 문화

로마의 도로와 수도교



1 로마법(미국 루이즈페투스기록보관소) 로마는 제국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로마법 대전』으로 집대성됐다(80쪽 참고).

2 아피우스 가도(이탈리아 로마)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표준화된 도로를 제국 곳곳에 건설했다. 그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로망이 확충됐다.

3 수도교(프랑스 가르) 인구가 늘면서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근처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건설했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경우 다리를 놓았다.

4 콜로세움(이탈리아 로마)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맹수와 검투사의 대결, 병사들 간 모의 전투 등을 보여 주는 원형 경기장으로, 관객들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했다. 구경거리와 빵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이었다.

5 개선문(이탈리아 로마)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기념해 개선문을 세웠다.





↑ **카타콤**(이탈리아 로마) 로마 근교 지하에 만든 묘지이다. 크리스트교도는 박해를 피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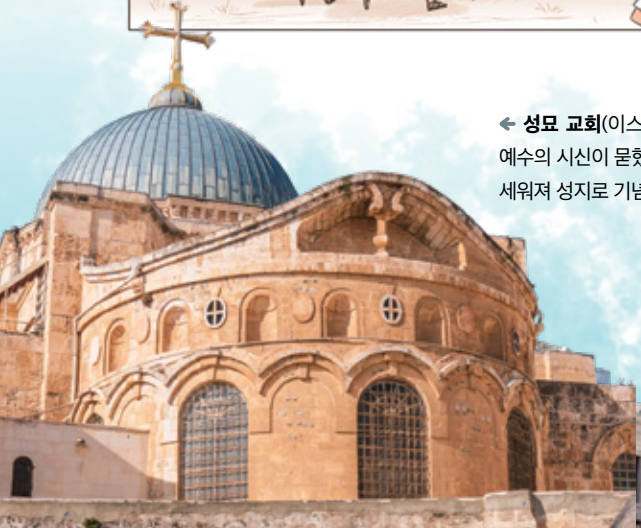
03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독립을 추구하며 구원자를 기다렸다. 구세주(크리스트)를 자처한 **예수**는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하느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며, 민족과 신분을 넘어선 신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로마는 예수를 처형했다.

예수가 죽은 후 제자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트교**가 널리 퍼졌다. 크리스트교 신도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억눌러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것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도 세력이 계속 커지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313). 이후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고(392),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뿌리로 성장했다.

크리스트교의 전파와 로마 교회





← **성묘 교회**(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의 시신이 묻혔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성지로 기념되고 있다.



↓ **성 베드로 대성당**(바티칸 시국)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교회이다.

04 로마에 맞서며 발전한 파르티아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서아시아에 그리스계 국가가 들어섰지만, 기원전 3세기에 이란계 유목민이 이를 몰아내고 파르티아를 세웠다. 파르티아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왕 중의 왕(샤한샤)'을 자처하며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는 등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으려 했다(35쪽 참고).

파르티아는 중국(한)과 로마 사이에서 중계 무역(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물건을 또 다른 나라에 파는 무역 형태)으로 번성했다. 그러나 서쪽의 로마가 세력을 뻗어오자, 기원전 1세기 중반부터 로마에 맞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다. 나중에는 동쪽의 쿠샨 왕조와도 맞서면서 국력이 약해졌다(47쪽 참고). 결국 반란 등으로 쇠약해진 파르티아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다(74쪽 참고).





↑ **파르티아 기마병**(영국박물관) 말을 타고 뒤돌아 활을 쏘는 기술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를 정도로 파르티아 기마병은 실력이 뛰어났다.



→ **파르티아 뿔잔**(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동물과 연결된 뿔 모양 잔은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에서 두루 발견되는 유물이다(34쪽 참고). 풍요를 상징하는 뿔잔 위에 새겨진 포도 덩굴 무늬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뿔잔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거쳐 신라까지도 전해졌다.



↑ **날개 달린 사자와 수련 화분이 있는 조각**(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문 위에 달려 있던 장식이다. 동물 표현에서는 헬레니즘과 로마의 영향이 보이지만, 날개 달린 사자와 수련 화분이라는 소재는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전통을 잇고 있다.

↓ **파르티아의 전승 기념 부조**(이란 이제) 말을 탄 파르티아 왕이 로마 병사들을 줄줄이 포로로 잡은 모습을 새겼다.



함께 확인해요

❶ 로마는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 황제가 되면서 공화정에서 □□(으)로 변화했다.

❷ 페르시아를 계승한 □□□□은/는 로마에 맞서며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❸ 생각 UP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창의 쑥쑥 활동

모둠 활동

3~4명으로 구성한 모둠 단위로 가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든 후 발표합니다.

활동 방법

❶ 주제 고르기

[보기]에 있는 고대 국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 하나를 고릅니다.

❷ 내용 구성하기

고른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어떻게 보여 줄지 정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합니다.

❸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만들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듭니다.

- 본문: 역사적 상황을 잘 묘사하는 글
- 이미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진, 삽화
- 해시태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 댓글: 정치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

❹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소개하기

모둠별로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소개하고, 교실에 전시합니다.

❺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평가하기

전시된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둠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잘 드러냈는지 평가합니다.

유의 사항

- 오늘날의 관점이 아닌 당시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 다른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단, 현재의 관점에서 정치 체제를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보기]에 없는 고대 국가를 선택해도 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고대 국가를 고르도록 합니다.

활동지

고대 국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 만들기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에서 서로의 소식과 정보 등을 주고받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고대 국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 하나를 고른 다음, 해당 국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소식과 정보 등을 소개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들어 봅시다.

01 주제 고르기

[보기]

☐ 페르시아 34쪽



☐ 그리스 36쪽



예시 ☑ 로마 공화정 40쪽



☐ 로마 제정 41쪽



02 내용 구성하기

어떤 정치적 특징을 보여 줄까?

예시 로마가 공화정인 시기에 평민의 권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로 보여 주고 싶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예시 전쟁에 나가면서 평민의 권리가 강해졌으니,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로마 평민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해.

댓글은 어떻게 구성할까?

예시 평민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귀족과 그렇지 않은 평민의 반응을 댓글로 보여 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

03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만들기



평미니우스 ····· 계정 이름



이미지

476 300

본문 ····· 오늘도 로마를 위해 갑옷을 입는다.
로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나도_군인 #참정권을_달라 #평민회_설치 ····· 해시태그

댓글 ····



귀족투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평미르쿠스 우리도 로마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데 왜 참정권 안 줌?

평가하기

- 해당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적절한 이미지로 표현했나요?
- 게시물 본문에 역사적 상황을 오류 없이 반영했나요?
- 해시태그에 정치적 특징이 나타났나요?
- 댓글에서 당대 사람들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나요?
- 발표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했나요?

이번 중단원에서는 인도, 중국의 정치 변화와 종교·사상 성립의 관계를 탐구하고, 유라시아 교류를 탐색할 수 있다.

주제 6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 주제 4(38쪽)
→ 주제 11(70쪽)

불교의 전파와 인도 고대 왕조의 성장

핵심 질문
불교가 고대 인도 사회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01 불교의 탄생

기원전 6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은 철기 문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정복 전쟁이 치열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다. 이에 정치·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와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계급이 성장했다(32쪽 참고). 영향력이 커진 이들은 브라만 중심의 신분 차별에 점점 불만을 느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어떤 사상이나 학설을 처음으로 내세움.)했다. 석가모니는 오랜 고행(육체적 고통을 견디며 수행하는 것) 끝에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브라만교의 신분 차별을 부정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신분 차별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에게 큰 환경을 받았다. 불교는 이후 인도를 지배한 왕조들의 보호 아래 주변 지역으로 퍼져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고행 중인 석가모니상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석가모니는 인도 북부의 작은 나라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다.

02 불교를 장려한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4세기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북부를 처음으로 통일했다. **아소카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후, 도로를 정비하고 관료제(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업무를 나누고 관리의 등급 등을 정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전성기를 이끌었다.

평등을 강조한 불교는 인도의 다양한 지역을 통합하려던 아소카왕에게 유용한 종교였다. 그는 불경을 정리하고 사원과 탑을 세우며 불교를 주변 지역에 전파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는 ❶**상좌부 불교**가 발전했다.

❶ **상좌부 불교** '상좌부'는 '오래 수행한 승려의 길'이라는 뜻으로, 이를 본받아 각 개인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03 쿠샨 왕조의 성장과 불교의 확산

기원후 1세기경 서쪽에서 온 쿠샨족이 쿠샨 왕조를 세웠다. 쿠샨 왕조는 인도 서북부와 간다라 지역을 차지하면서 동서 무역을 주도했다.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왕**은 불경을 다시 정리하고, 불교의 확산을 지원했다. 이 시기에는 대중의 구제(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를 강조하는 ❷**대승 불교**가 발전했다.

이 시기에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가 융합한 **간다라 양식**이 유행해 인간의 모습으로 불상을 제작하기도 했다(48쪽 참고). 간다라 양식은 대승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❷ **대승 불교** '대승'은 '중생을 태우는 큰 수레'라는 의미로, 개인의 깨달음에만 치우친 상좌부 불교를 비판하고 대중에게 불교를 전할 것을 주장했다.

아소카왕의 고뇌와 불교

전쟁 이후 나(아소카왕)는 마음속에서 다르마(진리)를 향한 큰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복에 대한 후회도 생겼다. 자유민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이런 일에 고뇌를 느낀다.

- 아소카왕의 대석비문

탐구 ① 전쟁 이후 아소카왕이 불교를 장려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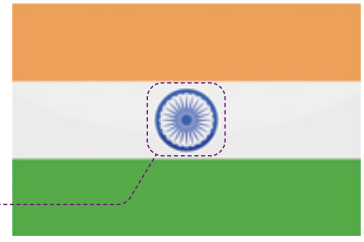


→ **아소카왕의 돌기둥 머리 부분**(인도 사르나트박물관) 아소카왕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기둥에 적어 전국에 세웠다. 이 돌기둥은 1950년에 인도의 국가 상징으로 지정되어 국기와 화폐 등에 사용됐다. 수레바퀴(법륜)는 불교의 법과 진리를 뜻한다.

탐구 ② 오늘날 인도에서 왜 아소카왕의 돌기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자.



↑ 인도 지폐



↑ 인도 국기



함께 확인해요

❶ 석가모니는 브라만교를 비판하며 □□을/를 창시해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❷ 생각 UP 인도 고대 왕조들의 정책은 불교의 정착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간다라 양식, 헬레니즘과 불교의 만남

간다라 양식은 수 세기에 걸쳐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한 독특한 불교 미술을 말합니다. 간다라 양식이 독특한 이유는 불상의 모습에서 그리스 신상과 유사한 특징, 즉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종교와 서방의 예술이 융합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융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1 전파

동방으로 향한 그리스 문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이후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곳에 그리스인이 이주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점차 동쪽으로 퍼져 이집트와 서아시아 지역에도 그리스 양식이 나타났다. 여러 지역에 전파된 그리스 문화는 이후 지역 문화와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다.

알카즈네(요르단 와디 무사)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도시 페트라에 있는 신전으로, 바위산을 반쯤 깎아 만든 건축물이다. 입구에는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조각상들이 있다.



02 만남

간다라는 어떤 지역?

간다라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오늘날 파키스탄 북서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만나고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사후 간다라 지역에 성립한 그리스계 국가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동서양 문화가 섞인 독특한 예술 양식이 탄생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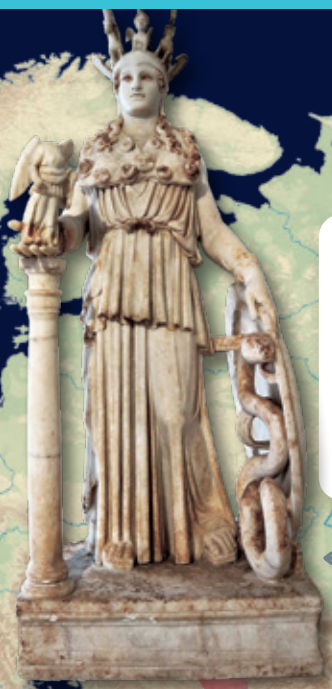


03 융합, 그리고 다시 전파

초창기 불교에서 표현한 부처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불상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발자국 혹은 수레바퀴의 형태로 표현했다. 간다라 지방에서 헬레니즘(39쪽 참고)이 불교와 만나면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이 처음 등장했다. 이는 동아시아로도 전파되어 한·중·일의 불교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



← **아테네 조각상**(그리스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



→ **룽먼 불상**(중국 뤄양)

↓ **부처를 상징하는 발자국**(인도 부다가야)



영향

구불거리는 머리 모양



전파



변화

옷 주름

전파

← **이집트에서 발견된 불상**(이집트 국립박물관) 최근 이집트에서도 간다라 불상이 발견됐다.

← **간다라 불상**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함께 탐구해요

❶ 간다라 양식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❷ 논술 UP 오른쪽 글을 읽고 '헬레니즘'이라는 용어가 지닌 한계를 비판해 보자.

'헬레니즘(Hellenism)'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중엽 독일의 역사학자가 지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는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르던 그리스인의 문화가 동방으로 널리 퍼졌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 7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

핵심 질문

진의 통치 정책은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경쟁의 시대, 춘추 전국

기원전 770년 주는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겼다(33쪽 참고). 주 왕실이 약해지면서 제후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에 비해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철기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회 변화가 나타났다. 철제 무기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철제 농기구의 이용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했다.

늘어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각국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이를 위해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았는데, 이때 나타난 다양한 사상가와 그들의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한다. '제자(諸子)'는 여러 학자, '백가(百家)'는 수많은 학파를 뜻함.



제자백가가 꿈꾼 사회



탐구 ① 내가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라면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02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

진(秦)은 법가를 받아들여 국력을 키우고 기원전 221년에 중국 전역을 통일했다. 진왕은 스스로 '첫 번째 황제'라는 뜻 **시황제**라고 칭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제**를 시행했다. 이 밖에도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 진의 최대 영역과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



>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군수를 뒀다. 법률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수레의 바퀴 폭을 같게 했으며, 문자를 통일했다.
>
> - 사마천, 『사기』

탐구 ② 봉건제에서의 제후와 군현제에서의 군수는 어떻게 다를까?

한편 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고(53쪽 참고), 남쪽으로도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다. 이런 대외 정책으로 진(Chin)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이는 오늘날 중국을 부르는 **차이나**(China)의 유래가 됐다.

그러나 진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 집행과 ❶**분서갱유**와 같은 사상 통제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농민들을 만리장성과 병마용갱 등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해 큰 고통을 줬다. 결국 진은 시황제가 죽은 뒤 ❷진승·오광의 난으로 국력이 약해졌고, 전국에서 농민 봉기(많은 사람이 어떤 일에 항의하거나 뜻을 펴기 위해 저항하는 것)가 일어나 곧 멸망했다(기원전 206).

❶ **분서갱유** 법가 사상이나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한 많은 책을 불태우고(분서), 시황제의 통치를 비판한 학자들을 땅에 묻은(갱유) 사건이다.

❷ **진승·오광의 난** 진승과 오광은 변방 수비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났으나, 큰비를 만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당시 법에 따라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농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 **병마용갱**(중국 시안) 진시황릉 근처에 있는 큰 구덩이로, 병사와 말 모양의 흙 인형들이 발굴됐다. 병마용은 죽은 시황제를 호위하는 군대 역할을 했다.

↓ **만리장성**(중국 청더) 시황제 때는 흙을 다져 만리장성을 쌓았다. 현재 모습의 벽돌로 쌓은 장성은 훗날 명대에 세운 것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 북쪽에 □□□□을/를 쌓았다.

❷ **생각 UP** 진이 더 오래 왕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통치했어야 할까?



주제 8

관련 주제 → 주제 9(60쪽)

천하를 양분한 한과 흉노

핵심 질문

진이 멸망한 후 중국을 지배한 한은 유목 지역을 지배한 흉노와 대립했다. 두 제국은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

01 한의 성립과 발전

진이 멸망한 뒤 유방(고조)이 세운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기원전 202). 이후 **무제**는 수도 부근에만 시행되던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를 뒷받침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이 된 유교

무제는 유학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 진의 가혹한 통치와 구별되면서도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유학 교육 기관(**태학**)을 세우고, 유학 지식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했다. 유학은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기에 국가의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줬고, 통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탐구 ① 한 무제는 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까?

중간에 나라가 무너진 시기를 기준으로 앞 시기를 전한, 그 이후를 후한이라고 불러.



무제는 대외 정복에 나서 영토도 넓혔다. **흉노**에게 승리한 뒤 서역(한의 서쪽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나라들)으로 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단길**(실크로드)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교류했다(54쪽 참고). 이어서 동쪽의 고조선과 남쪽의 베트남도 공격했다.

그러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걷어 농민들이 몰락했고, 관리와 상인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 대토지 소유자(**호족**)가 됐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무너졌다가 후한이 다시 세워지기도 했다. 후한 중기부터 어린 황제들의 잇따른 즉위(왕의 어머니 쪽 친척)로 외척과 환관(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의 정치 개입이 심해져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결국 ❶황건적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이어져 후한은 멸망했다(220).

❶ **황건적의 난** 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써서 '황건적'이라고 불렸다.

역사를 시간 흐름대로 서술하지 않고 각 사건과 인물별로 따로 서술했지.



← 사마천

• 동아시아에 영향을 준 한의 문화

역사 중국의 신화 시대부터 무제 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가 편찬됐다. 사마천이 쓴 이 역사서는 이후 중국 역사서의 모범이 됐고, 고려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다.

제지술 후한의 채륜은 나무껍질, 천 등을 으깨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을 발전시켰다. 채륜이 개량한 종이는 가볍고 만들기 쉬웠으며 값이 쌌다. 이는 학문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전해졌다.



→ **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종이**(중국 간쑤성박물관)

한은 400여 년 동안 통일 제국을 유지하며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켰어. 그래서 중국 고전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지.



02 유목 제국을 이룬 흉노

유라시아 북부에 펼쳐진 초원 지대에는 여러 유목 민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 흉노는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이 중국을 통일할 무렵 세력을 빠르게 키웠지만 시황제의 공격을 받아 황허강 북쪽으로 밀려났다.

진이 멸망하자 흉노의 **묵특** ❷**선우**는 흉노와 여러 유목 부족을 통합해 유라시아 동부 초원에 유목 제국을 건설했다. 또한 한 고조의 군대와 싸워 이긴 후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옷감과 식량 등을 받았다. 흉노의 세력이 커지면서 변경(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땅)에 살던 주민이나 한 출신 인물들이 흉노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들은 군사나 행정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흉노는 기마병을 육성한 무제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분열했다. 그중 일부는 한에 ❸**조공**하는 등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점점 약해졌다.

❷ **선우** 흉노 제국의 군주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의 '황제'와 비슷한 표현으로, 선우 아래에 여러 흉노왕이 있었다.

❸ **조공** 책봉을 받은 왕이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 책봉은 황제가 지역의 지배자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공·책봉은 직접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 두 나라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형식적인 외교 관계였다.

한과 흉노 관리의 대화 속 유목 사회의 모습

한

흉노의 풍속은 노인을 천대한다고 하던데요?

흉노

한에서도 자식이 군대에 가면 부모가 자식을 챙기지 않소? 노인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소. 그러니 좋은 건 젊은이에게 줘서 잘 싸우도록 하고, 그 젊은이가 노인을 지키는 거요. 이렇게 해야 아비와 자식이 각각 오랫동안 서로를 보호할 수 있소.

한

흉노는 일상 예절과 왕실 예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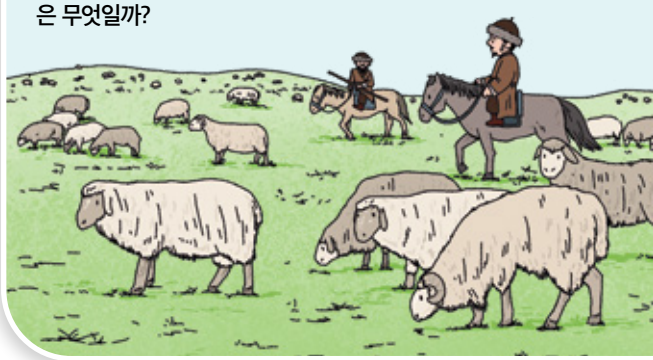
흉노

흉노인은 가축의 고기와 젖, 가죽을 활용하기 위해 계절마다 옮겨 다니며 가축에게 풀과 물을 먹이오. 덕분에 흉노인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일이 없을 때 휴식을 즐기오. 또한 흉노인의 약속은 간단해 실행하기 쉽소.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단순해 정치가 한 몸처럼 편하게 움직이는 거요.

이에 비해 한은 친족이 혈연적으로 멀어지면 서로 죽이고 반역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의 백성은 좋은 집을 짓는 데 힘을 다 쓰고, 성 안에서 농사로 먹고사니 전투에 서툴지 않소?

-『사기』

탐구 ❷ 위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유목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흉노의 새 장식 금관
(중국 네이멍구박물관)

함께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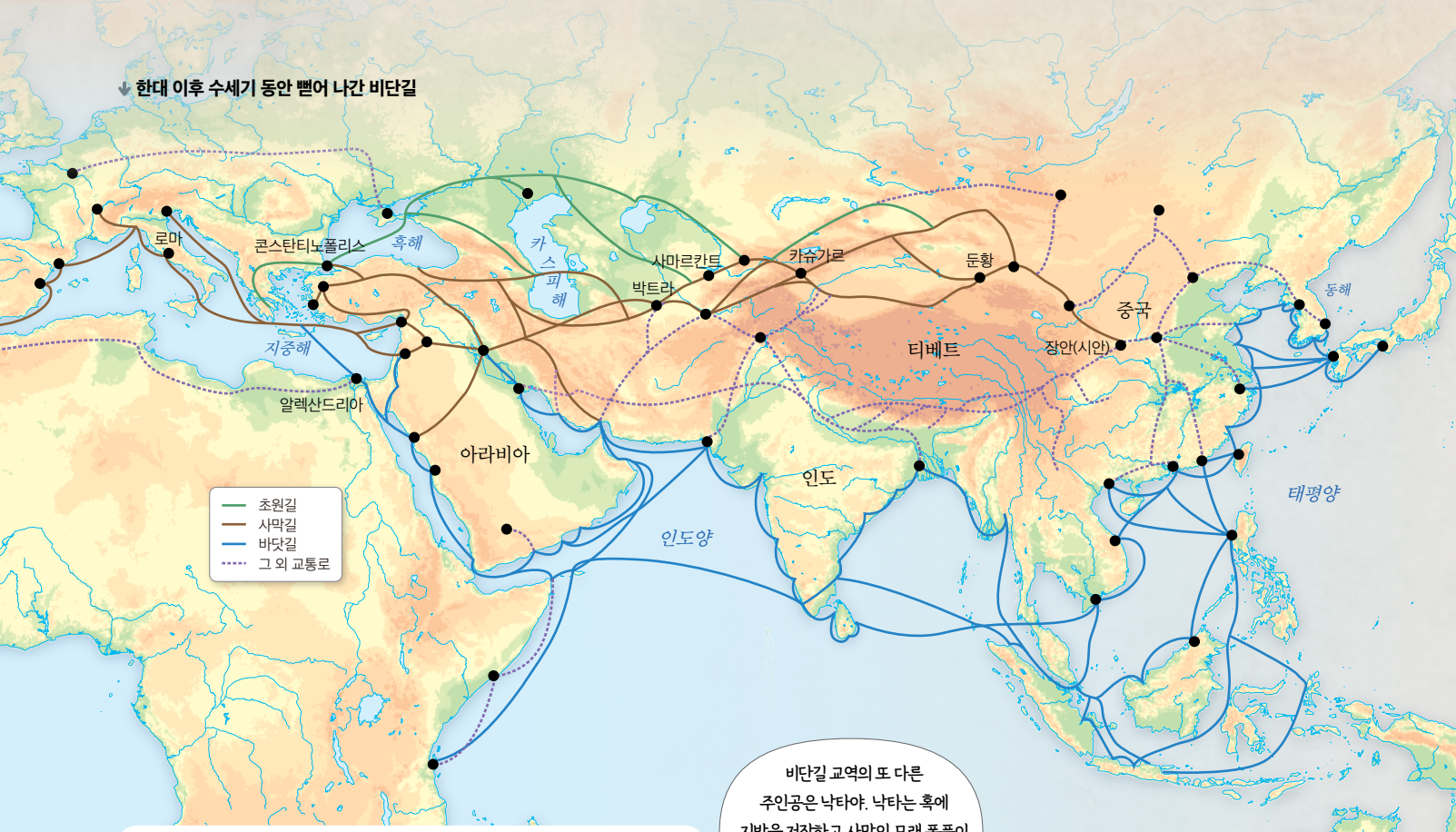
❶ 한은 □□을/를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❷ **생각 UP** 흉노와 한족 왕조인 진·한은 시기별로 어떤 관계였을까?

생각 쑥쑥 탐구

비단길, 아시아와 유럽을 잇다

비단길(실크로드)은 비단을 사고팔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됐던 길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하는 사막길만 의미했습니다. 이후 사막길의 남북에 있던 초원길과 바닷길, 그리고 초원, 사막, 바다의 세 길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길까지 포함한 그물 모양의 교통로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비단길은 누가 개척했고, 비단길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01 누가 비단길을 개척했을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은 초원을 찾아 이동하며 가축을 기르고 주변 지역과 교류했다. 이런 유목민들의 활동으로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도시 간의 교통로가 연결됐다. 이처럼 비단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과 오아시스 도시 사람들의 활동으로 개척됐다.



02 한이 비단길 교역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일까?

중국의 비단은 흉노를 통해 서쪽 오아시스 도시들로 전해졌고, 다시 각 지역 상인을 통해 인도와 파르티아 등을 거쳐 로마까지 전해졌다. 무제는 흉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월지와 손잡을 목적으로 장건을 파견했다. 비록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건의 여정 덕분에 한은 서역으로 가는 길과 그곳의 정치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후 한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서역으로 가는 비단길 교역을 장악했다.



↑ **장건이 서역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그린 벽화**(중국 둔황)

03 비단길을 통해 무엇을 교류했을까?

비단길은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중요한 동서 교역로였다. 상인, 사신, 순례자, 예술가 등 많은 사람이 비단길을 이용했고, 비단 외에도 보석, 향료, 포도, 말 등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더 풍성해졌다.





↑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서커스 흙 인형**(중국 지난시박물관)



← **인도에서 발굴된 로마 금화**(영국박물관) 인도는 바닷길을 통해 한과 로마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 **비단옷을 입은 로마의 귀부인**(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 먼 길을 거쳐 수입되는 동안 가격이 수십 배 뛰었지만, 로마와 지중해 도시의 부유층 사이에 중국 비단으로 만든 옷이 유행했다.



→ **날아가는 제비를 밟고 달리는 청동말**(중국 간쑤성박물관) 중앙아시아산 말은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용됐다. 특히 한은 유목 세력과의 전쟁에 필요한 기마병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중앙아시아산 말을 구하려고 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비단길의 탄생과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❷ 논술 UP 장건은 '비단길의 개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적절한지 오른쪽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해 보자.

한동안 비단길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만 여겨졌다. 이는 유럽 또는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초원과 오아시스를 무대로 세계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중앙아시아라는 역사적 공간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비단길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만들어진 여러 거점이 교역망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다음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빈칸에 써 보자.



이 시기부터 인류는 식물과 동물을 길러 식량을 구했어.



이 시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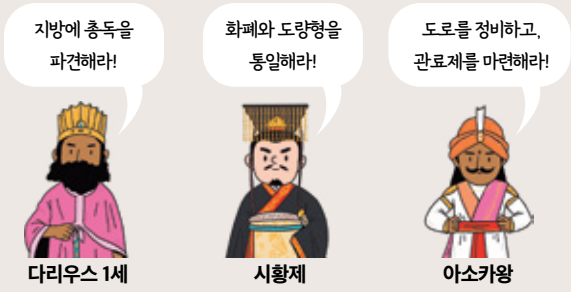


이 시기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뤄 살았어.

너희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 이 시기는 _____ 시대야.



2 다음 정책들을 시행한 공통된 이유를 써 보자.



3 다음 종교에 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크리스트교 ○	○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 강조
불교 ○	○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
유교 ○	○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길 강조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약탈당한 로제타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01 로제타석은 무엇일까?



검은 돌 위로 글씨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특히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는 마치 그림 같아!



이 문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해. 마치 유적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안내판처럼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세 종류의 문자로 새겼어.



이 로제타석에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해.

02 로제타석은 왜 중요할까?

알렉산드로스 정복 전쟁 이후 이집트 지역에도 그리스계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졌다. 로제타석에는 그리스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인 신성 문자(동물, 사물, 신체 등의 모습을 본뜬 문자)와 민중 문자(신성 문자보다 간소화된 문자)가 모두 새겨져 있다. 그리스 문자를 통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실마리를 찾았고, 마침내 1822년에 프랑스 학자가 상형 문자 해독에 성공했다. 덕분에 오늘날 파피루스나 유물에 적힌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



→ **로제타석 탁본**

03 로제타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 로제타석의 고향은 런던의 영국박물관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어야 합니다.

← **자히 하와스**(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위원장)

(나) 그리스와 이집트의 문화유산들은 영국박물관에서 세계의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 **하나 볼튼**(영국박물관 홍보담당)

1798년에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침입하면서 학자들과 예술가 167명을 함께 데려갔다. 이 학술 조사단은 이집트에 머무르는 3년 동안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1801년에 이집트에 머무르고 있던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항복하면서 로제타석은 영국 소유로 넘어갔고, 이후 영국박물관에 전시됐다.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영국에 로제타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많은 약탈 문화유산을 보유한 영국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색해요

약탈 문화유산의 다른 사례를 찾아 소개해 보자.

- 미국 대법원이 반환을 결정한 이라크의 니네베 유적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약탈해 간 조각품(엘긴 마블스)
- 프랑스가 약탈했던 조선의 외규장각 의궤
- _____

“ 내가 지지하는 입장은 (가) / (나) 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